

김진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방안 연구
- 다양한 표현기법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조현숙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방안 연구
- 다양한 표현기법 중심으로 -

김진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일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조현숙

인 준 서

조현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한국 회화는 반만년 동안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회화를 흡수하면서 독창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연적이고 정신적인 토양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 되어 온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화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미술을 이해하고 표현해 봄으로써, 세계화·국제화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한국인을 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은 전통 회화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한국화 실기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통 미술 교육에 대한 지도방법이나 관련 자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되지 않으므로 인해 실제적인 전통 미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지금 우리 미술 교육 현장에서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의 옛 그림을 낯설거나 어려운 것으로 여겨 친근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해 친숙히 느끼게 하고 한국화에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실기 지도내용을 설정하고 지도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 내용으로는 문헌 및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국화의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고, 한국화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본 후, 한국화 교육의 의의와 중등 교육 발달단계에 따른 한국화 지도방법을 알아본 다음,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7종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 전통회화를 응용하여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을 전제로 한국화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재료와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쉽고 흥미로운 교육이 가능한 실기 중심의 학습지도안을 만들어 보았다.

본 논문은 중학교 미술 교육에서 효과적인 한국화 수업을 위하여, 한국화의 정신성을 기조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표현기법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바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 시키고, 인성과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우리의 전통 미술을 계승하며 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목적 | 1 |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 |
| II. 한국화 교육의 이론적 배경 | 3 |
| 1. 한국화의 이해 | 3 |
| 1) 한국화의 역사적 흐름 | 3 |
| 2) 한국화의 개념 및 특성 | 6 |
| 2. 한국화 교육 | 11 |
| 1) 한국화의 교육적 의의 | 11 |
| 2) 중등 교육 발달단계에 따른 한국화 지도 | 12 |
| III.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한국화 교육 | 17 |
| 1. 7차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의 전통 미술교육 | 17 |
| 2.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한국화 분석 | 19 |
| 3. 한국화 분석을 통한 한국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36 |
| IV. 중학교 한국화 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안 | 38 |
| 1.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기법 지도방안 | 38 |
| 1) 다양한 주제 선택 | 38 |
| 2) 표현 재료의 확대 및 다양한 표현 방법 | 40 |
| 2. 학습 지도안 | 46 |
| 1) 민화를 이용한 새로운 표현 | 46 |
| 2) 문인화를 이용한 새로운 표현 | 49 |
| V. 결론 | 52 |

참고 문헌

참고 도판

ABSTRACT

표 목 차

| | |
|---|----|
| 표-1) 로웬펠드(V. Lowenfeld)의 미술 표현 단계 | 15 |
| 표-2) 사춘기의 미술표현(13-17세/ Lowenfeld) | 16 |
| 표-3) 제 7차 중학교 교육 과정 미술과 내용체계 | 21 |
| 표-4) 학년별 중학교 미술 교과서 | 23 |
| 표-5) 중학교 미술 교과서 본문에 실린 한국화 도판 수 | 24 |
| 표-6)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주제별 도판 수 | 26 |
| 표-7)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기법별 도판 수 | 28 |
| 표-8)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의 비중 조사 | 30 |
| 표-9)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의 내용 조사 | 31 |

도 판 목 차

- 도1> 조현숙, 학생들 (수묵담채/120×90cm)
- 도2> 조현숙, 목·찌·빠 (수묵/38×36cm)
- 도3> 조현숙, 초충도 (수묵 채색/34×26cm)
- 도4> 조현숙, 성경그림 (도화지에 먹과 채색/35×37cm)
- 도5> 조현숙, 비구상 (색한지/97×137cm)
- 도6> 조현숙, 비구상 (색한지에 채색/97×137cm)
- 도7> 조현숙, 분꽃 (붓펜 선묘/35×25m)
- 도8> 조현숙, 가족 (장지에 목탄/164×125cm)
- 도9> 조현숙, 어린 시절 (천에 채색/43×33cm)
- 도10> 조현숙, 선인장 (호분지에 채색/89×67cm)
- 도11> 조현숙, 매화 (호일위에 매직, 매니큐어/35×37cm)
- 도12> 조현숙, 유리 구두, (검정색 도화지, 매니큐어 화이트로 표현/29×22cm)
- 도13> 조현숙, 우물가 (천 플라쥬/29×30cm)
- 도14> 조현숙, 비구상 (종이죽, 나뭇가지/39×28cm)
- 도15> 조현숙, 민들레 (장지위에 고무판/23×23cm)
- 도16> 조현숙, 비구상 (양철냄비, 숟가락, 미니자동차, 아크릴 물감/20×50cm)
- 도17> 조현숙, 여인 (스테인드글라스/29×21cm)

I. 서론

1. 연구목적

회화는 문화의 한 전형적 양상이라 볼 수 있으며 한 국가나 민족의 창의력 내지는 문화역량을 가늠하게 한다. 최근에 한국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일제치하에서 민족문화 말살과 식민지교육을 강요당하였으며 해방 이후 서구의 문화 및 교육사조 등으로 인하여 미술교육은 서구중심의 교육으로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미술교육에서도 한국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즉, 한국화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미술을 이해하고 표현해 봄으로써, 세계화·국제화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한국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은 전통회화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지금 우리 미술교육 현장에서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의 옛 그림을 낯설거나 어려운 것으로 여겨 친근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통 미술 교육에 대한 지도방법이나 관련 자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되어 실제적인 전통 미술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화 실기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화의 지도에 있어서는 외형상의 모방, 답습에 의한 소극적인 표현활동으로만 지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한국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한국화에 대한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갖고 있으며 한국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고 있다. 이는 한국화 교육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해 친숙히 느끼게 하고 한국화에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실

기 지도 내용을 설정하고 지도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본 연구를 가장 필요로 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도 대상을 중학생 이라고 생각하여, 연구의 대상을 중학생으로 하였다.

중학교 한국화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한 한국화 실기 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통회화를 응용하여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을 전제로 한국화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재료와 표현 방법을 모색하여 보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쉽고 흥미로운 교육이 가능한 실기 중심의 학습지도안을 만들어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문헌 및 자료를 기초로 하여 II장에서는 한국화의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고, 한국화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화 교육의 의의와 중등 교육 발달단계에 따른 한국화 지도방법을 알아본다.

본론인 III장에서는 중학교 7종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교육 내용을 한국화 도판과 단원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미술 교과서 분석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화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쉽고 흥미롭게 한국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재료와 여러 표현 방법을 모색하여 보고, 쉽고 흥미로운 교육이 가능한 실기 중심의 학습지도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한국화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한국화의 이해

1) 한국화의 역사적 흐름

우리나라 회화의 시작은 보통 청동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암각화(岩刻畵)에서 그 최초의 모습을 찾는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진 회화가 종이, 붓, 먹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때는 삼국시대부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부터 회화는 사대부와 승려, 직업 화가들에 의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또는 감상을 위해 그려졌다.¹⁾

우리나라 초기의 미술로 토기(土器)를 비롯한 기능적인 면에 중심을 두고 있는 신석기 미술(新石器 美術)은 단조로운 가운데 소박하고 명랑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또 우리나라 고유의 유형인 청동기(靑銅器)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등의 청동기 미술은 이미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날카롭고 날렵한 예술적 기량(技倆)을 품고 있어 이후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로 계승되는 예술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적 내용과 실용성에 근거하는 우리나라 초기의 예술에는 응축된 힘과 기백(氣魄)이 넘친다. 이처럼 응축된 힘과 기백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힘껏 발휘되었다, 특히 6세기 말 7세기 초에 많이 그려졌고 극도로 섬세해진 사신도(四神圖)는 거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세련미와 상상의 동물인 청룡(靑龍), 백호(白虎), 현무(玄武),朱雀(朱雀)이 꿈틀거리며 벽을 차고 나올 듯 생동감에 넘친다. 그림 밖으로 차고 나오는 강한 생명감으로 기백에 넘치는 아름

1) 장경희 외,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예경, 1994, p.149

다음은 우리 고대예술의 우뚝한 또 하나의 봉우리이다. 저 깊은 내부로부터 터져 나오는 힘찬 굵은 묘선(描線), 웅장한 채색이 밀어내는 기백의 아름다움, 필선의 강력한 속도는 마치 도도히 흘러가는 막아놓은 강물이 차고 나올 듯, 응축된 힘과 속도를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내면의 강렬한 생명의 힘을 외형화(外形化)시켜 내고 있는 것이다.²⁾

한반도와 북부 만주벌판을 무대로, 거친 자연과 중국의 거대한 세력에 대항해야만 했던 고구려는 한과 육조회화의 영향을 토대로 힘차고 율동적이며, 때로는 긴장감이 감도는 강한 성격의 화풍을 발전시켰다.

고구려 시대의 고분군에서 발견된 각종 벽화에서 나타난 사신도를 비롯하여 인물화, 행자도, 춤, 씨름 의식, 사냥 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들이 있어 채색을 사용한 흔적이 있으며, 이 경향은 7세기 중반까지 계속된 큰 세력임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벽화 양식의 채색 종류의 그림들은 후에 불교 미술이 발달되면서 사찰 벽화로 이어져왔고, 민간에서 그 명맥이 계속되어 무당들이 무신도나 민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실용화와 더불어 감상화가 크게 성행했고, 화론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벌써 우리나라의 산천을 그리는 실경산수화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특히 청자(靑磁)와 함께 이 시대 미술의 ‘귀족적 아취(雅趣)’를 잘 반영하고 있는 불교회화는 그 화려한 채색이나 정교한 문양은 물론, 구도나 인물묘사에 있어서 철저히 고려만의 특색을 질게 풍겨준다.

한국화의 근본을 이루고 주재료로 이용되었던 수묵은 산수화 양식과 더불어 과거제도를 도입한 고려 중기로 사대부 계층에서 유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교를 유교로 삼았던 조선조의 시작과 함께 크게 융성하기 시작했다. 조선 왕조의 건립으로부터 그림의 환경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매우 달랐다. 유교가 조선조 지배이념이 됨으로써 유교 교양을 지닌 사대부 문인 취미가 감상화를 지배하게 된 것과, 종교화로서의 불화가 아닌 감상화로서의 산수

2) 김영주, 『한국미술사』, 나남출판, 1997, pp.34-37

화가 주류로 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진채화(眞彩畵)가 본류였던 데 비하여 조선조에는 사대부 취미에 따라서 수묵담채(水墨淡彩)가 주류가 된다. 3)

조선시대의 회화는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으니, 양식적 변천에 따라 초기(1392~약1550), 중기(약1550~1700), 후기(약1700~약1850), 말기(약1850~1910)의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중국 그림의 여러 기법을 토대로 한 북송 시대의 이과파, 남송시대의 원채화풍으로 안견(安堅;?~?), 강희안(姜希顔;1417~1464) 등의 화가들이 있다. 안견과의 산수화는 경물(景物)들로 조화를 이룬 구도, 넓은 공간에 대한 지대한 관심, 짧은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단선점준(短線點皴) 등 조선 초기 회화에서만 볼 수 있는 화풍을 형성했고, 일본의 15세기 무로마치시대 산수화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4) 중기의 회화는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국란시대로 사색당쟁을 배경으로 둔세적(遁世的)인 경향이 강하였으며, 김제(金堤;1524~1593), 이경윤(李慶胤;1545~1611), 이상좌(李上佐;?~?) 등의 화가들이 있다. 후기는 영·정조가 통치하는 시대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와 사회, 문화를 발달시켜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관심이 높았던 때이다. 그림의 특수성이나 주체성이 한껏 고양되던 시대로 실학사상과 함께 훌륭한 화가들이 배출되었으며, 윤두서(尹斗緒;1668~1715), 김두량(金斗梁;1696~1763), 정선(鄭善;1676~1759), 심사정(沈師正;1707~1769), 이인문(李寅文;1745~1821), 김홍도(金弘道;1745~?), 신윤복(申潤福;1758~?), 강세황(姜世滉;1712~1791) 등이 있다. 이 시기의 겸재 정선(謙齋 鄭善) 이룩한 실경의 그림 안에 진경의 의미를 담은 산수화는 우리나라 산수화풍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새 경향의 화풍을 수용하고 소화하여 한국의 경관에 어울리는 한국적인 화법을 구축하여 표현함으로써 한국적인 정서와 미감에 맞는 회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조선 중기에 겪었던 전쟁의 혼란에서 벗어나

3) 전개서, p312.

4)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p.31

사회가 안정되고 생활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여행과, 여행을 통한 기행예술(紀行藝術)이 발달했다.⁵⁾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 덕분에 진경산수화가 발달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중국의 그림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화법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에까지 높이 평가받고 연구되고 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처럼 우리나라의 실경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직접적인 시각경험을 생생하게 화폭에 담아 표현한 정신을 살려서 주변의 풍경을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풍속화가 유행하게 되는데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는 농촌사회와 농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발갈이, 추수, 집짓기, 대장간 등의 생생한 민중 삶의 현장을 그리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탈하고 익살스럽게 묘사해 내었다. 혜원 신윤복(惠園 申潤福)은 섬세한 필치로 양반들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들의 풍습, 남녀의 애정을 풍자적으로 묘사했다. 이처럼 생활 주변에서 찾은 재미있는 소재를 통해 현대의 시대상이나 생활상을 솔직하게 반영하여 한국적으로 표현한 것을 현대에도 표현해 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는 새로운 민족적 자아의식에 기반을 두었고 어느 시대의 회화보다도 토속적인 한국미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시대에는 민중의 정서가 담긴 소박하고 산뜻하며 아름다운 민중예술이 일반 백성들의 생활 안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된다. 민서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민화가 유행하게 되는데 정식 도화원의 화가가 아닌 일반 백성으로서 그림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그려진 실용성을 갖는 그림이다. 민화는 민중의 생활과 밀착되어 그려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발상과 묘사에는 소박하고 낙천적인 따듯한 꿈과 환상, 역동적인 신명이 나타나며 우리 민족의 근원적인 정서가 듬뿍 들어 있다. 민화는 일반적으로 정통회화와 비교해서 묘사나 세련미나 격조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익살스럽고 소박하면서도 파격적인 구성과 대담하고 원색적인 색채 구사로 해서 매우 강렬하다. 원색적인 색채처럼 적나라한 민중의 체취와

5) 진준현, 『우리 땅 진경산수』, 보림출판사, 2004, p.9

더불어 민중의 정신적 에너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그림이다.⁶⁾민화의 다양한 주제와 색채표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성격과 독창성, 색채감각과 미의식을 알 수 있다. 민화를 응용하여 다양한 주제와 색채로 창의적인 표현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한국화 지도를 할 수 있다.

말기에는 조선 왕조가 기울어지는 시기로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1786~1856), 허유(許由;1809~1892), 전기(田崎;1825~1854), 김수철(金秀哲;?~?), 장승업(張承業;1843~1897) 등이 있으며, 추사 김정희는 수묵의 의미를 한층 실감케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근대 한국화는 조선조 양반 사회가 붕괴되고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본을 통한 서구 문화의 유입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이른바 개화기라고 하는 과도적인 성격이 강한 시기로 조석진(趙錫晉;1853~1920), 안중식(安中植;1861~1919)등이 있으며, 전통성을 담보로 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출한 화가로 박생광과 이응노를 들 수 있다.⁷⁾ 박생광은 채색화의 전통을 시대상황에 맞게 계승하면서 신경지를 이룩했다. 짙은 농채로써 불화나 무속화 혹은 이른바 민화의 세계를 창조적으로 계승했으며, 이응노는 재료상으로는 묵필과 정신상으로는 민족의식의 덕목을 가지고 수묵으로 현대적 감각에 의한 국제성을 창출하였다.

과도기 초기에는 일본을 통한 서양화를 접하고 일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다운 그림을 모색하던 50년대까지의 시기와 서양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화를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70년대까지의 시기로 나뉘어 질 수 있다.⁸⁾

광복과 더불어 일제 잔재의 청산과 전통미술을 계승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한국화 양식의 한계실험 무대였던 60년대 작가, 다양한 실험적 의식에 공감대

6) 김영주, 『한국미술사』, 나남출판, 1997, pp.312-314

7) 윤범모, 『한국근대미술』, 한길아트, 2000, p.38

8) 박용숙, 『한국화 감상』, 대원사, 1992, pp.12-19

를 형성하며 수묵화운동을 이끌어 왔던 80년대 작가, 수묵화외에 꾸준한 채색 위주의 경향을 지속해왔던 작가군, 80년대 중반 채색과 수묵의 적극적 융합을 시도했던 채묵 경향의 작가,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의 도입, 전통적 묵법에 사경과 현실풍경을 구사하는 경향의 작가 등, 현대에는 새롭고 실험적인 양식으로 재료와 양식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민족정서를 강하게 반영하는 추세로 국제적인 회화의 사조에 발맞추어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2) 한국화의 개념 및 특성

한국화란 명칭은 최근 문화 주체성 회복의 노력 결과로 동양화라는 명칭 대신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이 펴낸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을 보면, “한국화란 명칭은 한국 전통의 회화, 1920년대부터 서양회화와와의 구분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동양화란 명칭을 일제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조성된 용어로 비판받고 이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개칭한 것이다. 1971년 김영기(1911-2003)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당시의 일제 잔재 청산과 주체성 확립의 조류와 밀착되어 크게 호응을 받아 1980년부터 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 주최의 대한민국 미술 대전을 비롯한 각종 공모전에 동양화란 명칭 대신 한국화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3년 개정된 새 미술교과서도 이 명칭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로 단순히 명칭 변경의 차원에서 벗어나 민족미술의 본 얼굴을 되찾고, 이를 주체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었으며, 한글세대를 주축으로 한국의 전통성과 고유성에 대한 자각과 재인식을 통하여 한국화의 현대화와 세계미술의 주역으로서의 비약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⁹⁾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화라는 용어는 한국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자각하고 재인식하여 한국화의 현대화와 세계 미술의 주역으로서 비약하기 위한 민족 미술의 본 얼굴을 찾는 문화 주체성 회복의 노력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화는 예로부터 산수화를 으뜸으로 치게 되었는데 이론과 방법을 달리 하여 남파와 북파로 분리되었다. 남파는 남화, 북파는 북화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화는 소재와 형식에 따라 산수화, 초상화, 풍속화, 탕화, 화훼도, 영모도, 초충도, 사군자, 민화, 어해도, 송학도, 송호도, 기명절지화 등으로 분류된다. 중학교에서는 편의상 주제에 따라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동물화로 구분하고 있다. 또 채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수묵화와 채색화로 구분하고 채색의 정도에 따라 수묵담채화는 먹 위주로 하되 채색이 얇게 들어간다. 채색화는 먼저 먹선으로 형태를 그려 놓고 채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채워나가는 기법으로 먹색을 쓰기는 하나 계속 덧칠하여 채색 위주로 그린다.

이처럼 수묵화와 채색화는 스타일이 서로 다른 양식의 이름이다. 수묵화는 물과 먹물이 화선지에 스며들고 번지는 효과를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 채색화와 다른 화풍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수묵화와 채색화의 양식상 차이를 만든 요인은 우선 바탕재의 성질이다. 수묵화는 먹이 화선지에 그대로 스며들게, 채색화는 아교(阿膠) 도막(塗膜)¹⁰⁾ 위에 그린다. 현대의 채색화는 한국화의 특수성을 지닌 진채화 양식으로, 진채 기법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채색화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독창적인 표현양식을 추구해 창의적인 작업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화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에 의하여 우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 24』, 웅진출판주식회사, 1994, p.134

10) 아교포수도막법(阿膠泡水土塗膜法)으로 두꺼운 한지나 배접된 종이에 흰색과 아교물, 명반을 혼합하여 도막을 형성하여 번지고 스며드는 성질을 없앤 다음 그리는 기법이다.

리 미술의 특성이나 한국미의 본질에 대한 이론들을 몇 가지로 정리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미술사 및 미학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1905~1944)은 ‘적조미(寂照美)’, ‘비균제성(非均齊性)’, ‘비경제성(非經濟性)’, ‘무관심성(無關心性)’, ‘무계획성(無計劃性)’, ‘무기교의 기교’, ‘구수한 큰 맛’ 라고 하였으며, 윤희순(尹喜淳;1902~1947)은 ‘질적(質的)인 미’, ‘청소(淸楚)한 색감’, ‘선의 유동성(流動性)’, ‘정명(精明)한 조형(造形)’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지훈(趙芝薰;1922~1993)은 삼국시대 이래의 우리 미술의 특성을 각각 ‘힘의 미술’, ‘꿈의 미술’, ‘슬픔의 미술’, ‘멋의 미술’로 파악하였고, 김원룡(金元龍;1922~1993)은 한국미술의 바닥을 흐르고 있는 것은 자연주의(自然主義)로서 ‘자연에 대한 애착과 자연현상의 순수한 수용이 한국민족의 특성이요, 또 한국미술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우리 미술의 특성을 시대별, 분야별로 나누기도 하였는데, 김원룡은 선사시대(강직의 추상화) - 삼국시대(한국적 자연주의의 전개) - 고구려(움직이는 선의 미) - 백제(우아한 인간미) - 신라(위엄과 고졸(古拙)한 우울) - 통일신라시대(세련과 조화의 미) - 고려시대(무작위(無作爲)의 창의) - 조선시대(철저한 평범의 세계) 등의 분석과 문명대(文明大)의 삼국시대(장엄한 아름다움) - 통일신라시대(세련, 명쾌, 현란, 섬세한 아름다움) - 고려시대(장대성과 단아한 귀족성) - 조선시대(조형의 평범성과 순박한 정감) 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전통 회화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우리 미술의 특성은 중국미술이 보여주는 논리적이고, 권위적이고, 철학적이며 심각한 이상주의적인 것에 비해 보다 감성적이고, 즉흥적이고, 생활적이며, 풍류적이다. 또한 중국미술이 치밀 정세한 기교와 빈틈없는 완벽성을 추구하는 데 비해 우리 미술을 대체(大體)와 대의(大意)를 통해서 천연성과 대범성을 추구하며, 그들이 자연과 인위(人爲)를 초월하려는 사변적 의지에 차 있는 예술을 지향하는 데 비해 우리는 보다 자연에 순응하고 귀의하려는 현실적 생

활감각에 더욱 뜻을 두고 있는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¹¹⁾

한국화를 포함한 동양화의 특징에 관한 논의 중 잘못된 견해가 있다. 그것은 동양화의 특징이 단지 그 도구에만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저 모필과 먹, 그리고 동양화의 안료, 화선지, 혹은 비단 등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동양화라 여기는 견해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동양화만의 독특한 예술적 규율이 있음을 인정치 않은 경우이다.

또 하나의 잘못된 견해는 동양화의 부분적인 특징, 예를 들면 선이나 필묵 등만을 가지고, 이러한 특징들을 절대적이고 고립적이고 불변의 것으로 여기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동양화가 독자적이고 올바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 특징들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풍부해져 왔으며, 동양 전통회화의 연구는 바로 새 시대 동양화 창조와 주춧돌이 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단순한 특징에 관한 연구는 현대 동양화의 실제상황을 벗어난 것으로 이러한 이론은 현대 동양화의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중국의 고대회화 역시 끊임없는 발전과정을 통해 그 내용이 점차 풍부하게 된 것이다. 만약 동양의 회화가 원래 있어왔던 기법만을 계승하고 새로운 발전을 꾀하지 않는다면 필연 그 내용과 예술적 창조성이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 또 반대로 오로지 발전만을 주장하여 동양화 표현방법상의 고유한 전통을 경시한다면 그 결과는 필연 동양화의 기본적인 특색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양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서 이야기했듯이 쉽게 서양화법으로 동양화의 표현을 대신하는 무지한 주장을 배척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법에 있어서 옛 사람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동양화가 아니라고 하는 편협한 주장에도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화는 그 발전과 실제생활의 관계 등에 입각하여 현대 사회생활의 반영이라는 필요에서 출발하여 그 기본규율을 연구해야 한다. 특히 현대 동양화

11) 송수남, 『한국화의 길』, 미진사, 1995, p.43-46

는 우량한 전통의 발전과 계승에 주의하고, 또 전통회화가 사회 각 방면의 표현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동양화 연구는 옛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을 세움(推陳出新)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¹²⁾

한국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면서 현대에 맞는 새롭고 실험적인 양식으로 계속 발전하여야 한다. 한국화의 사의적 측면을 다양한 매체의 실험을 통해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전통적 재료나 기법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닥종이 판 위에 한지를 풀처럼 쭈어 붙여 부조의 느낌을 만들고 여기에 먹과 동양화 안료로 채색하는 방식이나, 고유의 한지에 고서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은은한 한지 색에 고서적의 글씨가 인쇄된 그런 종으로 삼각형의 스티로폼 덩어리를 꼼꼼하게 포장하여 빼곡히 화판에 붙여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 등이 있다. 또한 수묵을 재료로 흑백 화면을 만들지만 그 안에는 산수대신 변화무쌍한 현대 도시 풍경 추상 미술 등을 표현하기도 하며, 전통적 재료인 지필묵(紙筆墨)을 뛰어넘어 장르와 양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작업을 펼치기도 한다. 그 예로 병원의 X선 사진을 라이트 박스에 올려 붙이거나 붓대를 묶는 의료용 스테이플로 동양화적 화면을 구현하는 작가, 먹과 서양화의 재료를 함께 사용해 극도의 절제된 형식 안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가, 섯가루로 산수화를 그리는 작가 등이 있다.

12) 진조복, 『동양화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5, pp.14-15

2. 한국화 교육

1) 한국화의 교육적 의의

‘동양화’라는 용어에서 ‘한국화’라는 새로운 용어로 바뀌고, 동양이라는 지역적 의미에서 벗어나 우리교육의 주체성을 되살려 중국화, 일본화와 함께 한국화로 사용하면서 그 의미는 교육현장에서부터 비중이 높아지고 우리 전통미술을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국화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단지 종이, 먹, 붓, 채색도구를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형상화한다는 조형적인 활동에서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민족의 뿌리를 아는, 그야말로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화는 미술의 근본원리와 철학에 있어서 동양적인 심오함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미술의 강조 및 이를 바탕으로 세계문화를 이해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의 미술교육에서 그 주류는 서양회화의 표현기법 위주의 지도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미의식과 조형사고가 서구 지향적으로 흐르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학교 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면서 한 개인의 미적 인식을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일수록 국적 없는 문화가 세계화가 될 수 없고 가장 민족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국제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우리다워야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¹³⁾ 그러므로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것을 먼저 이해하고, 표현 및 감상활동을 통하여 전통미를 재발견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계승하려는 태도를 가질

13) 이성도, “한국미술의 조형의식”, 「미술교육」 제5호, (한국미술교육학회, 1995), p.44

수 있도록 미술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서구문화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우리 것을 찾아 조상의 얼을 심어주고 전통미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민족 주체성을 회복시키는데 한국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화 교육은 우리 고유의 전통 회화에 대한 미적 가치를 발견하며 이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과 자세를 길러 새로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한국화 교육의 의의가 있다.

2) 중등 미술표현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한국화 지도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의 목적은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다.

먼저 학생의 성장 발달에 따른 발달 단계가 가지는 지각 및 창의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개인마다 성장의 속도, 소질, 개성, 환경, 관심도가 각각 다르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여러 학자들, 미술교육자들이 연구하였으며 그 대표 인물로써 로웬펠드가 있다.

로웬펠드는 어린이의 순차적인 발달을 매우 중요시하며 어린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달하며 어떤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미술교육은 어린이의 일반적인 발달단계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그에 맞는 주제, 동기부여, 재료 등이 주어져야 한다¹⁴⁾는 것이다.

로웬펠드의 발달단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14) 이규선, 김동영, 전성수 공저, 『미술교육학 계론』, 교육과학사, 1998.

15) 전계서, pp.171-172

표-1) 로웬펠드(V. Lowenfeid)의 미술 표현 단계

| 단 계 | 주 요 특 징 |
|------------------|--|
| 난화기 (2-4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질서한 난화기 : 감각이 주변 환경과 접촉하면서 그 반응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동작을 통제하지 못하며 무의식적으로 표현한다. - 조절하는 난화기 : 동작이 반복되어 시각과 근육 활동 간의 협응이 시작된다. 선이 일정한 반복으로 나타난다. - 명명하는 난화기 : 무의식적 접근이 점차 의식적인 접근이 되어 자신이 그려 놓은 난화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다. |
| 전도식기 (4-7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된 것과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하기 시작하며 아는 바를 그린다. - 반복을 통해 한정된 개념을 발달시킨다. - 인물, 나무, 해, 산 등을 주로 그리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한다. |
| 도식기 (7-9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그것을 도식화하여 표현한다. - 중요한 부분을 과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생략하며 주관적인 인물과 공간개념을 표현한다. - 기저선(base line)이 나타나 바닥이나 땅을 나타낸다. |
| 또래집단기 (9-11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집단의 의사를 존중하고 도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며 세부표현이 나타난다. - 중첩과 기저선 사이에 공간을 인식케 되며 위에서 본 모습을 표현한다. |
| 의사실기 (11-13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쓰며 시각형과 비시각형인 경향이 나타난다. - 배경과 원근감, 비례 등을 표현한다. |
| 결정기 (13-17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며 표현유형이 촉각형, 시각형, 중간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 시각형은 외관과 비례, 명암, 원근 등을 중시한다. - 촉각형은 내면정서의 표현, 색채나 공간표현이 주관적 표현이다. |

표-2) 사춘기의 미술표현(13-17세/ Lowenfeld)

| | |
|--------------|---|
| 특 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대한 인식 - 표현의 세 가지 유형 1) 시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체: 눈 - 관심: 환경, 외관 2) 촉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체: 신체 - 관심: 자기표현, 주관적 경험 3) 중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체: 두 방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 - 관심: 추상 |
| 인 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형 : 외관, 비례, 명암, 순간의 인상묘사, 사실적인 해석 2) 촉각형 : 내적 표현강조, 정서적 특성, 가치에 따른 비례, 주관적인 해석, 성격 묘사 |
| 공 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형 : 원근법에 따른 표현, 배경, 분위기, 3차원의 특징, 명암, 지평선 2) 촉각형 : 가치에 따른 원근, 대상과의 가치관계, 기저선 |
| 색 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형 : 사실적인 색채표현, 분위기에 따른 색채 변화, 분석적인 태도, 인상주의적 2) 촉각형 : 색채의 표현적, 주관적 의미, 중요도에 따른 색채 변화 |
| 디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형 : 형태, 리듬에 대한 미적 해석, 장식적인 특성, 조화강조 2) 촉각형 : 추상적인 특성의 디자인, 기능적인 디자인, 상업디자인 |
| 동기유발 및 제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자극과 촉각적 자극 - 배경과 인물 - 외형과 내용 - 모델해석하기 - 스케치 - 조각 - 그래픽 - 디자인 - 회화 - 벽화 |
| 재 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용, 유화, 콩테, 수채물감 - 벽화 - 찰흙, 석고 등의 조각 - 나무, 금속, 그래픽 |

사춘기는 청년기에 들어서는 시기로 심리적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며, 자각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기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에는 시각형, 촉각형, 중간형의 구별이 뚜렷해진다. 시각형은 외계 현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객관적이고 인식적인 표현(비례, 명암, 배경, 원근)에 의해 묘사된다. 촉각형은 내부의 신체적 감각이나 감정의 세계를 투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각세계와 경험을 결합시켜 나타내는 주관적이며 정감 있는 표현을 하게 된다. 그로인해 내적인 세계를 표출하고 정의적인 표현을 한다. 중간형은 시각형과 촉각형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표현을 하게 된다.¹⁶⁾ 제작과정이나 방법보다는 완성품을 중요시한다.

이때에는 미술표현이 개념적 형태에서 사실의 형태의 표현으로 발달해 감에 따라, 섬세한 선의 묘사로서 대상을 표현하는 채색화 지도에서 객관적으로 외계사실을 탐구하여 특징적으로 파악하려는 관찰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그린 것을 자꾸 고치게 되는 현상과 그로 인한 좌절감도 맛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화 제작 시 밑그림을 갱지에 그리고 다시 먹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수정이 이루어지므로 자신감 있는 대상을 표현할 수 있다.¹⁷⁾

일단 구상을 하게 되면, 자연과 일상적인 소재들은 그것이 친근하고 평이한 만큼 표현에 있어 학생의 주관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여야 한다. 작품제작을 함에 있어서 사실적인 면과 형태를 부정적으로 시도해 봄으로써 또 다른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며 내면세계로의 창의적인 활동에 있어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하여야 할 것이다.

표현할 때는 물과 먹, 색의 농도를 잘 맞추고 대상의 철저한 관찰과 채색을 통해 대상물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표현하여야 한다. 대상의 묘사는 평면

16) 박상욱, 「미술교육에서 미적 감상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관동대, 1996.

17) 이희은, 「중학교 미술교과에 나타난 수묵화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동아대, 2000.

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하여 한국화의 독특한 여백의미를 사용
하여, 진행된 작업이 평온함 속에 어색함이 없도록 깊이 표현에 있어, 색
채를 느낌 그대로 자유로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자기표현과 주관적 경험에 관심을 가지는 촉각형의 경우, 전통회화의 정신
을 살려 한국화 표현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화가의 사상이
나 철학 등의 내면세계를 그림이라고 하는 수단을 빌어 표출한 문인화의 사
의적인 표현을 현대에 맞게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한국화 지도는 전통성과 한국인의 정신을 심어주면서 다양한 색을 경험하
여 흥미를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중학교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 한국화 교육

1. 7차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의 전통 미술교육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한 제 7차 교육과정은 2001년부터 학교 급 별, 학년 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되어 2003년부터는 중학교 1,2,3학년 모두 적용되었다.

중학교 미술과의 내용은 교과 특성상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으로 이루어진다. ‘미적 체험’에서는 대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발견하여 활용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표현’에서는 발상력을 북돋워 주제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창의적인 표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감상’에서는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보는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품의 특성을 이해하며 존중하도록 하였다. 즉 대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발견하고(미적 체험), 이를 창의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며(표현), 작품과 미술품을 통해서 시대의 양식에 따른 미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감상)이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미술 교과목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과의 총괄목표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이는 심동적인, 인지적, 정의적인 면들과 함께 고려한 것으로서, 미술활동에서 심동적인 측면인 표현 및 감상능력, 인지적인 측면인 창의성, 정의적인 측면인 심미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와 전통 문화의 계승에 역점

18) 박은영 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 인적 자원부, 1999.

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감상 활동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통 미술을 보다 강조하고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미술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전통 미술 교육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교육 중점 사항으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서울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유도하며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¹⁹⁾ 라고 명시하고 있다.

7차 교육 과정에서의 전통 미술 교육은 우리 조상이 남긴 미술 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발견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술교육에서 전통 미술 즉 한국화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단지 종이, 먹, 붓, 채색도구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형상화 한다는 조형적인 활동에서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민족의 뿌리를 아는 그야말로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서구문화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우리 것을 찾아 조상의 얼을 심어주고 전통미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민족 주체성을 회복시키는데 한국화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 7차 중학교 교육 과정 미술과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은 문화사, 2000, p.69

표-3) 제 7차 중학교 교육 과정 미술과 내용체계

| 영역 | 중 학교 |
|------|---|
| 미적체험 | (1)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과 조화 이해하기 |
| | (2) 미술과 생활과의 관계 이해 생활에서 미술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
| 표현 | (1)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 등을 생각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 | (2) 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 | (3)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
| | (4) 표현 재료와 용구 주제나 표현 방법에 알맞은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여 활용하기 |
| 감상 | (1) 서로의 작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에서 표현 특징을 찾아 비교, 설명하기 |
| | (2) 미술품 감상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 이해하기 |

2.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한국화 분석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체적인 지침서이며,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학습 자료이다. 특히 미술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비교하여 문자보다는 도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시각적이고 감상적이다. 학습자는 도판을 통해 다양한 창조적 조형미를 직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조적 사고 능력 등의 전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간략한 도움 글을

통해 제작과정과 표현상의 유의점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한국화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화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 교과서 분석에 있어서는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김인정 중학교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그 적용대상이 되는 1,2,3학년 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미술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1,2,3학년 7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중학교 미술 교과서 본문에 실린 한국화의 도판 수와 한국화를 주제별, 기법별로 도판 수를 분석 한다. 다음으로 한국화 단원의 비중조사와 내용조사를 한다. 단원의 비중조사는 표현 영역에서의 한국화 내용을 조사하고, 내용조사는 표현과 감상 영역에서의 한국화 내용을 조사한다.

또한 교과서의 목차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두산 교과서의 목차는 다른 교과서와는 그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편의상 다른 교과서와 같이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분석한다.

표-4) 학년별 중학교 미술 교과서

| 출판사 | 학 년 | 저 자 | 비 고 |
|------------------|-----|---|-----|
| (주) 교학사 | 1학년 | 노영자, 이인숙 | |
| | 2학년 | 노영자, 이인숙 | |
| | 3학년 | 노영자, 이인숙 | |
| (주) 교학연구사 | 1학년 | 김정희, 박인숙, 서권수, 성종실, 정연희, 류장걸, 한경애 | |
| | 2학년 | 김정희, 박인숙, 서권수, 성종실, 정연희, 류장걸, 한경애 | |
| | 3학년 | 김정희, 박인숙, 서권수, 성종실, 정연희, 류장걸, 한경애 | |
| 대한교과서 (주) | 1학년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 |
| | 2학년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 |
| | 3학년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 |
| (주) 두산 | 1학년 | 고승혜, 이완숙, 장선화, 고승근, 류제순 | |
| | 2학년 | 고승혜, 이완숙, 장선화, 고승근, 류제순 | |
| | 3학년 | 고승혜, 이완숙, 장선화, 고승근, 류제순 | |
| (주) 삶과 꿈 | 1학년 | 홍명섭, 남정숙 | |
| | 2학년 | 홍명섭, 남정숙 | |
| | 3학년 | 홍명섭, 남정숙 | |
| (주)중앙교육진흥 연구소 | 1학년 | 서석례, 이석원, 이주연 | |
| | 2학년 | 서석례, 이석원, 이주연 | |
| | 3학년 | 서석례, 이석원, 이주연 | |
| (주) 지학사 | 1학년 | 노부자, 윤양희, 안금희, 오미숙, 김규봉 | |
| | 2학년 | 노부자, 윤양희, 안금희, 오미숙, 김규봉 | |
| | 3학년 | 노부자, 윤양희, 안금희, 오미숙, 김규봉 | |

1) 미술 교과서에서 한국화 단원의 비중

표-5) 중학교 미술 교과서 본문에 실린 한국화 도판 수

| 출판사 | 학년 | 미적체험 | 표현 | 감상 | 교과서 외 | 전체 | 계 | 수록 도판(%) | 비고 |
|------------------|----|------|------|------|------------|-----|-----|-------------|----|
| (주) 교학사 | 1 | · | 10 | 3 | (2) | 15 | 54 | 16.0 | |
| | 2 | · | 13 | 6 | 부록1 (2) | 22 | | | |
| | 3 | 1 | 6 | 9 | (1) | 17 | | | |
| (주) 교학연 구사 | 1 | 1 | 11 | 6 | (3) | 21 | 52 | 15.4 | |
| | 2 | · | 11 | 1 | (2) | 16 | | | |
| | 3 | 1 | 10 | 4 | · | 15 | | | |
| 대한교 과서 (주) | 1 | · | 3 | 7 | · | 10 | 25 | 7.44 | |
| | 2 | 1 | 7 | 2 | (1) | 11 | | | |
| | 3 | · | 4 | · | · | 4 | | | |
| (주) 두산 | 1 | 1 | 4 | · | (2) | 7 | 39 | 11.6 | |
| | 2 | 1 | 9 | 5 | (1) | 16 | | | |
| | 3 | · | 13 | 1 | (2) | 16 | | | |
| (주) 살과꿈 | 1 | 4 | 2 | 8 | (1) | 15 | 46 | 13.6 | |
| | 2 | 1 | 10 | 5 | (1) | 17 | | | |
| | 3 | 1 | 2 | 11 | · | · | | | |
| (주) 중앙 | 1 | 1 | 9 | 9 | (2) | 21 | 68 | 20.2 | |
| | 2 | 1 | 19 | · | (2) | 22 | | | |
| | 3 | 1 | 22 | · | (2) | 25 | | | |
| (주) 지학사 | 1 | · | 16 | 3 | (2) | 21 | 52 | 15.4 | |
| | 2 | · | 15 | 4 | 부록2 (2) | 23 | | | |
| | 3 | 1 | 6 | · | (1) | 8 | | | |
| 계 | | 18 | 202 | 84 | 32 | 336 | 336 | | |
| 수록도 판(%) | | 5.36 | 60.1 | 25.0 | 9.52 | | | | |

※ 교과서의 부분의 ()안 숫자는 미술 교과서에서 겉표지와 뒷표지에 수록된 한국화 도판의 개수이며 부록은 교과서에 수록된 개수를 의미한다.

표-3)의 내용은 미술 교과서 내에 수록된 한국화 작품의 도판 수를 나타낸 것으로 한국화 도판이 가장 많이 수록된 단원은 ‘표현’ 단원으로 전체 60.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상’ 단원이 25.0%, ‘미적체험’ 단원이 5.36% 순으로 나타났다. ‘표현’ 단원이 6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새롭게 제작된 교과서의 영역이 종전 5영역에서 3영역으로 바뀌면서 표현 단원의 페이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며, 이 단원에 한국화 표현에 관한 영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 별로 살펴보면, (주)중앙진흥출판사가 2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교학사가 16.0%, (주)지학사가 15.4%, (주)교학연구사가 15.4%, (주)삶과 꿈이 13.6%, (주)두산이 11.6%, (주)대한교과서가 7.44% 순이다.

교과서 외의 한국화 도판 수는 9.52%로 표지와 앞표지, 뒷표지, 차례 부분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쉬운 부분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교사가 주의 깊게 지도 할 필요가 있다.

표-6)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주제별 도판 수

| 출판사 | 학년 | 인물 | 정물 | 민화 | 사군자 | 풍속 | 산수 | 기타 | 전체 | 계 | 수록도판 (%) | 비고 |
|------------------|----|------|------|-----------|------|------|------|------|-----|-----|----------|----|
| 교학사 (주) | 1 | 2 | 1 | 3 | · | 3 | 2 | 4 | 15 | 54 | 16.2 | |
| | 2 | 2 | 6 | 3 | · | 3 | 5 | 3 | 22 | | | |
| | 3 | 1 | 1 | 1 | 1 | 2 | 8 | 3 | 17 | | | |
| (주) 교학연 구사 | 1 | 1 | 2 | · | · | 3 | 9 | 5 | 21 | 52 | 15.4 | |
| | 2 | 2 | · | · | 1 | · | 5 | 8 | 16 | | | |
| | 3 | 2 | · | 8 | · | 2 | · | 3 | 15 | | | |
| 대한 교과서 (주) | 1 | 1 | 1 | 1 | · | 1 | 4 | 2 | 10 | 25 | 7.44 | |
| | 2 | 1 | 1 | 1 | · | 1 | 2 | 5 | 11 | | | |
| | 3 | 2 | · | 2 | · | · | · | · | 4 | | | |
| (주) 두산 | 1 | · | 2 | 1 | · | 1 | 3 | · | 7 | 39 | 11.7 | |
| | 2 | 1 | · | · | · | 2 | 10 | 3 | 16 | | | |
| | 3 | 2 | · | 7 | · | · | 1 | 3 | 19 | | | |
| (주) 삶과꿈 | 1 | · | 1 | 2 | · | 4 | 3 | 4 | 15 | 46 | 13.6 | |
| | 2 | · | · | 2 | 2 | 2 | 7 | 5 | 17 | | | |
| | 3 | 2 | 1 | · | 2 | 1 | 8 | · | 14 | | | |
| (주) 중앙 | 1 | 2 | 1 | 2 | 2 | 3 | 8 | 3 | 21 | 68 | 20.4 | |
| | 2 | 3 | 4 | 2 | 4 | · | 6 | 3 | 22 | | | |
| | 3 | 3 | · | 4 | · | · | 5 | 9 | 25 | | | |
| (주) 지학사 | 1 | 3 | 1 | 3 | 3 | 1 | 7 | 4 | 21 | 52 | 15.6 | |
| | 2 | 2 | 1 | 1 | · | 5 | 10 | 4 | 23 | | | |
| | 3 | 2 | · | 2 | · | · | 4 | · | 8 | | | |
| 계 | | 33 | 23 | 45 | 16 | 35 | 107 | 71 | 336 | 336 | | |
| 수록도 판(%) | | 9.82 | 6.85 | 13.3 9 | 4.76 | 10.4 | 31.8 | 21.1 | | | | |

한국화 주제별 도판 수 분석표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산수화가 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21.1%로 기타의 내용으로는 추상적인 표현이나 동물화, 화조화 등을 기타로 구분하였다.

풍속화도 10.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서로는 인물화, 정물화 순이었으

며, 사군자는 4.7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화 주제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들이 표현되고 있지만 사군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교과서가 있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별 도판을 살펴보면 (주)삶과 꿈의 경우 1학년 교과서에는 정선(1676~1759)의 ‘금강전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2학년은 김홍도의 사인암이 수록되어 있으며 3학년에는 안견(1418~?)의 ‘몽유도원도’가 수록되어 있다. (주)지학사 역시 산수화 부분에 정선의 ‘금강전도’ 2학년의 경우에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3학년에는 송영방(1936~)의 ‘춤추는 산과 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중앙진흥출판사 1학년 교과서의 경우에는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2학년은 김기창(1913~2001)의 ‘청록산수’가 실린 것이 특징이다. 3학년은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수록되어 있다. 산수화의 경우 다른 출판사의 도판에서도 안견, 정선 위주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풍속화의 경우 대부분의 출판사에는 김홍도의 작품위주로 수록 되어 있다.

인물화의 경우에는 김명국(1600~?)의 ‘달마도’, 윤두서(1668~1715)의 ‘자화상’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화의 경우에는 김기창의 ‘군마도’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작자 미상의 ‘맹견도’도 많이 다루고 있다.

민화의 경우에는 ‘책거리그림’이나 ‘문자도’, ‘까치 호랑이’ 그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군자’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도판에서는 김정희(1786~1857)의 사군자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표-7)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기법별 도판 수

| 출판사 | 학년 | 수묵화 | 수묵담채 | 채색화 | 전체 | 계 | 수묵도판(%) | 비고 |
|---------|-------|------|------|------|-----|-----|---------|----|
| (주) 교학사 | 1 | 5 | 7 | 3 | 15 | 54 | 16.0 | |
| | 2 | 2 | 10 | 10 | 22 | | | |
| | 3 | 4 | 6 | 7 | 17 | | | |
| (주) 교학연 | 1 | 4 | 12 | 5 | 21 | 52 | 15.4 | |
| | 2 | 4 | 8 | 4 | 16 | | | |
| | 구사 | 3 | 1 | 2 | 12 | | | |
| 대한교과서 | 1 | 2 | 6 | 2 | 10 | 52 | 7.44 | |
| | 2 | 2 | 5 | 4 | 11 | | | |
| | (주) 3 | 1 | 1 | 2 | 4 | | | |
| (주) 두산 | 1 | 2 | 3 | 2 | 7 | 39 | 11.6 | |
| | 2 | 2 | 10 | 5 | 16 | | | |
| | 3 | 2 | 4 | 10 | 16 | | | |
| (주) 삼과꿈 | 1 | 3 | 11 | 1 | 15 | 46 | 13.6 | |
| | 2 | 5 | 9 | 3 | 17 | | | |
| | 3 | 6 | 5 | 3 | 14 | | | |
| (주) 중앙 | 1 | 6 | 9 | 6 | 21 | 68 | 20.2 | |
| | 2 | 5 | 12 | 5 | 22 | | | |
| | 3 | 5 | 12 | 8 | 25 | | | |
| (주) 지학사 | 1 | 5 | 10 | 6 | 21 | 52 | 15.4 | |
| | 2 | 2 | 17 | 4 | 23 | | | |
| | 3 | | 1 | 7 | 8 | | | |
| 계 | | 68 | 160 | 108 | 336 | 336 | | |
| 수묵도판(%) | | 20.2 | 47.6 | 32.1 | | | | |

한국화 기법별 도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화 기법은 대체적으로 수묵담채화가 4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색화가 32.1%, 수묵화가 20.2%로 나타났다. 이는 수묵담채화가 편중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전통적인 화풍의 기본은 유지하지만 차츰 변모하는 표현의 주제나 기법, 재료 등의 다양화와 개성화 되어 가는 현대의 한국화에 맞는 작품의 수록이 필요하다. 수묵화의 경우 먹의 농담을 살펴서 먹선의 변화를 보여주

는 작품이 많이 수록되었고 민화의 경우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근래에 들어 민화의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감상부분에서 도판의 수가 많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감상 자료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먹과 먹물의 효과만을 언급했고 비구상적인 면을 보여주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생활 주변의 일상적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이 수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활의 미가 바로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주변의 일상적인 소재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또한 생활 주변의 소재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풍속화나 인물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정물화의 경우 학생들의 작품이 많이 수록되어있으나, 한국화 영역에서만 학생의 작품이 실리지 않은 교과서도 볼 수 있었다.

단계별로 수묵담채화, 채색화로 나타내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표현기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듯이 학생의 이해를 돕는 도판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표-8)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의 비중 조사

| 출판사 | 학 년 | 한국화 내용 | | | |
|---------------|--------|-------------------------------------|-------|----------|------|
| | | 단원 제목 | 페이지 | 총 페이지 | % |
| (주) 교학사 | 1 | 수묵으로 그리기 | 28-29 | 74 | 2.70 |
| | 2 | 먹과 채색의 만남 | 20-23 | 74 | 5.40 |
| | 3 | 수묵화와 채색화 | 16-19 | 74 | 5.40 |
| (주) 교학연구소 | 1 | 수묵으로 나타내기 | 22-25 | 71 | 5.63 |
| | 2 | 수묵 담채로 나타내기 | 18-21 | 71 | 5.63 |
| | 3 | . | - | 68 | 0 |
| 대한교과서 (주) | 1 | 수묵화로 표현하기 | 17 | 71 | 1.41 |
| | 2 | 수묵 담채로 그리기 | 16-17 | 71 | 2.82 |
| | 3 | . | - | 71 | 0 |
| (주) 두산 | 1 | 사물의 표현-수묵화 | 19 | 71 | 1.41 |
| | 2 | 수묵과 채색의 효과를 살려서 | 14-19 | 72 | 8.33 |
| | 3 |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서 | 18-23 | 72 | 8.33 |
| (주) 삶과 꿈 | 1 | . | - | 66 | 0 |
| | 2 | 전통 미를 살려서 | 38-39 | 64 | 3.13 |
| | 3 | 생동하는 글과 그림 | 42 | 71 | 1.41 |
|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1 | 수묵의 향기 | 36-37 | 71 | 2.82 |
| | 2 | 먹과 색의 어울림 | 32-33 | 71 | 2.82 |
| | 3 | 같은 재료 다른 표현 우리의 옛 그림 전통에서 현대로 | 26-31 | 71 | 8.46 |
| (주) 지학사 | 1 | 먹으로 그린 그림 | 22-23 | 72 | 2.78 |
| | 2 | 수묵과 담채 | 20-21 | 70 | 2.86 |
| | 3 | 수묵과 채색의 조화 | 16-17 | 72 | 2.78 |

표-6)은 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미술 교과서에서 한국화와 관련된 단원을 출판사 별, 학년 별로 비교해 놓은 것이다. 교과서 출판사의 중 일부는 각각의 표현영역으로 나누어 다루지 않고, 주제에 따른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표현 방법으로 여러 재료와 장르의 다양한 작품을 다루고 있어 독립적인 한국화 단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각 단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단원 외에 한국화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여 보면 아래의 표-7) 과 같다.

표-9)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의 내용 조사

| 출판사 | 학 년 | 한국화 |
|---------------|--------|--|
| | | ▶ 단원 제목-내용 |
| (주) 교학사 | 1 | ▶[수묵으로 그리기]-수묵화의 재료 및 용구의 특성과 기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흐름과 감상]-시대별, 양식별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
| | 2 | ▶[먹과 채색의 만남]-수묵 담채화와 진채화의 기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우리 나라 미술과 동양 미술의 흐름]-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
| | 3 | ▶[수묵화와 채색화]-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성을 살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먹색을 살려서 먹에 채색을 더하여 전통회화의 새로운 표현 ▶[미술 문화 유산의 이해]-우리나라 미술품을 감상하고 미적가치와 표현의 특징을 이해한다. 우리나라 조형미 문인화와 채색화 |
| (주) 교학 연구사 | 1 | ▶[수묵으로 나타내기]-수묵의 성질을 알고 기법 탐색 ▶[먹과 종이의 만남]-수묵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고 표현 ▶[미술의 역사 속으로]-진경산수와 풍속화에 대하여 |
| | 2 | ▶[수묵 담채로 나타내기]-수묵 담채의 특징과 표현 기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 | 3 | ▶[전통 미술을 찾아서]-수묵과 채색의 비교 |
| 대한교과서 (주) | 1 | ▶[수묵화로 표현하기]-붓, 먹 화선지 등 재료와 용구의 특성 익히기 ▶[미술 문화 유산의 이해]-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
| | 2 | ▶[수묵 담채로 그리기]-재료와 용구의 사용과 표현 효과 |
| | 3 | - |
| (주) 지학사 | 1 | ▶[먹으로 그린 그림]-먹의 특성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
| | 2 | ▶[수묵과 담채]-수묵 담채의 특성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작품감상]-여러 주제로 다른 나라 도판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미술감상]-우리 나라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 | 3 | ▶[수묵과 채색의 조화]-채색화의 특징을 알고 전통미를 살려 표현할 수 있다. |

| | | |
|---------------|---|---|
| (주) 두산 | 1 | ▶[사물의 표현]-주제에 맞게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한다. 붓의 속도에 따른 먹선의 변화, 먹의 농담과 번짐 |
| | 2 | ▶[수묵과 채색의 효과를 살려서]-전통 기법인 수묵화와 채색화를 이해하고 주변풍경을 소재로 표현한다. 수묵화와 채색화 주변 풍경 그리기 ▶[작품 감상]-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제와 기법, 특징을 비교한다. |
| | 3 |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서]-전통 회화 기법인 수묵과 채색의 특징과 표현방법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전통 회화 감상 전통 회화의 표현 (심화학습)민화의 이해 ▶[우리 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 미술]-우리 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문화의 독창성을 발견한다. |
| (주) 삶과 꿈 | 1 | - |
| | 2 | ▶[전통 미를 살려서]-전통 미의 소중함을 살려 표현한다. |
| | 3 | ▶[생동하는 글과 그림]-사군자와 문인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 표현의 흐름]-다양한 미술 양식을 감상하며 미적 가치와 문화재의 소중함을 안다. |
|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1 | ▶[수묵의 향기]-먹의 특징을 이해하고, 농담을 살려 표현한다. [우리 민족과 민족 정서]-우리 나라의 민족 정서와 작품의 경향에 대해 알아본다. |
| | 2 | ▶[먹과 색의 어울림]-전통 회화의 정신을 이해하고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살려 독창적으로 표현한다. 수묵 담채와 전통기법 ▶[먹의 세계]-문인화와 사군자 |
| | 3 | ▶[같은 재료, 다른 표현]-여러 가지 재료와 표현 기법의 특징을 살려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옛 그림]-조상들의 생활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 민화의 소재를 알고 표현할 수 있다. 민화 옛보기 ▶[전통에서 현대로]-전통 회화의 표현 특징과 재료의 특성을 알고, 현대적 소재와 표현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화 단원 외에 한국화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감상’ 영역에서 우리나라 미술을 감상하는 부분이다. 그 외에는 다른 단원에서 주제 별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서 한국화 작품을 한두 점씩 제시하고 있다.

각 출판사 별로 한국화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고, 내용과 도판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교학사

1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은 ‘수묵으로 그리기’이다. 먹의 농담표현에 관하여 도판과 알기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사군자에 관하여서도 도판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2학년 미술 교과서에서의 한국화 단원은 ‘먹과 채색의 만남’이다. 수묵담채 기법과 진채화에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러 소재의 수묵담채화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전통 채색 물감의 종류를 사진을 넣어 설명하고 있으며, 민화에 관한 설명도 하고 있다.

3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은 ‘수묵화와 채색화’이다. 문인화와 여백과 낙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채색화의 제작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 하였으며, ‘전통회화의 새로운 표현’이란 주제로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기법을 소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교학 연구사

1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은 ‘수묵으로 나타내기’와 ‘먹과 종이의 만남’이다. ‘먹과 종이의 만남’에서는 수묵화의 전통 기법 이외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고 표현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제시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전통적인 기법에 충실한 도판만을 제시하고 있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학습 목표와 본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충 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효과를 볼 수 있는 작품을 제시하였다면, 한국화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

2학년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은 ‘수묵 담채로 나타내기’이다. 수묵 담채화의 표현 기법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하고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작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작품 비교에서 너무 다른 화제의 작품을 제시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각 나라 간의 표현 기법에서 오는 화풍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3학년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은 따로 없으며, 여러 단원에서 참고 작품으로 타 영역의 작품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3) 대한교과서

1학년 미술 교과서에서의 한국화 단원은 ‘수묵으로 표현하기’이다. 수묵의 표현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2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은 ‘수묵 담채로 그리기’이다. 수묵담채의 표현법과 사군자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3학년 미술 교과서의 경우에는 한국화에 관한 단원이 따로 없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재료의 작품을 싣고 있다. ‘색감 살려 나타내기’에서는 채색화와 민화에 대한 내용을, ‘표정과 움직임 살피서’에서는 수묵담채인 물을, ‘개성적인 인물 표현’에서는 조선시대 초상화에 관한 내용과 도판을 각각 싣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다른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미술의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에 대하여 폭넓게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하지만 1학년 교과서에서는 수묵의 표현법에 관하여, 2학년 교과서에서는 수묵담채 표현법에 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3학년 교과서에서 채색화에 관한 재료와 기법, 표현에 관한 설명과 도판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4) 두산

1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은 ‘사물의 표현’이다. 여기서 수묵화의 표현법에 대하여 짧게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2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인 ‘수묵과 채색의 효과를 살려서’에서는 수묵화와 채색화에 관하여 여섯 쪽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수화의 원근 표현 방법(삼원법)과 수묵담채의 표현 기법과 풍경화 제작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나무’를 주제로 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실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전통적인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현 방법의 작품을 접하면서 표현의 시각을 넓혀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대 한국화의 좀 더 실험적이고 다양한 표현 방법의 도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은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서’이다. 전통 회화의 표현기법과 채색화의 표현기법, 제작과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통 회화의 재료를 이용하면서도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표현한 작품도 수록하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표현 기법에 관한 도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심화학습에서는 민화에 대하여 두 쪽에 걸쳐서 여러 주제의 민화 도판을 실고 있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5) 삶과 꿈

1학년 미술 교과서에는 한국화 단원이 따로 없으며, 하나의 주제 안에서 여러 작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화 그림이 많이 실려 있다. 이처럼 단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장르를 구별하지 않는 다양한 표현 방법의 제시라는 점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표현 기법과 재료와 용구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표현 활동을 하는데 있

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2학년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은 ‘전통 미를 살려서’이다. 전체적으로 한국화 작품은 많이 실려 있으나 표현 기법이나 재료, 용구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실제 표현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3학년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은 ‘생동하는 글과 그림’이다. 이 단원에서는 사군자를 서예와 함께 다루고 있다. 사군자는 서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사군자로 현대적 변화를 거쳐 한국화의 한 분야로 발전 시켜야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군자 이외의 다른 한국화의 장르에 관한 내용이 없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 비하여 내용상 빈약한 것을 볼 수 있다.

(6)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은 ‘수묵의 향기’이다. 수묵으로 그리기, 기법과 함께 선비정신의 문인화에 관한 설명과 사군자에 관한 도판을 실고 있다. 1학년 미술 교과서에서는 다른 단원에서도 한국화의 도판을 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요한 생명’ 단원에서는 장승업의 ‘기명절지화’를 ‘움직이는 사람들’ 단원에서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살아가는 이야기’ 단원에서는 김홍도의 ‘서당’을 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화에 관하여 소재별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른 장르와 함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된다.

2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은 ‘먹과 색의 어울림’이다. 변관식의 ‘삼선암’ 작품 옆에 실제의 외금강 삼선암의 사진을 실어서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전통 회화 채색 물감의 종류를 알기 쉽게 도판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을 주제로 다양하게 표현된 수묵 담채화’는 4명의 현대작가의 각각 다른 표현을 통하여, 수묵 담채화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서예부분에서는 ‘문인화와 사군자’란 제목으로 사군자

그리는 기법에 대해 도판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3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은 ‘전통에서 현대로’이다. 「같은 재료, 다른 표현」이란 주제로 여러 작가의 작품과 학생의 작품을 실고 있다. 주제가 참신하며, 한지에 채색을 하여 꼬아 붙여서 표현한 학생의 작품도 독특하다. 다만 좀 더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표현 작품이 도판으로 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획기적이며, 더욱더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방법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주)두산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두 쪽에 걸쳐 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화 도판 뿐 아니라, 민화를 응용한 학생들의 협동작품과 작가의 작품을 실어서, 민화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전통에서 현대로’란 제목으로 현대적 표현기법으로 표현한 작가의 작품과 함께 학생들의 협동작품은 한국화 표현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혀준다.

(7) 지학사

1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은 ‘먹으로 그린 그림이다. 수묵화의 재료와 용구의 배치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삼묵법에 관하여 붓의 사용에 대해 그림과 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군자 도판도 수록하고 있다. 2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인 ‘수묵과 담채’에서는 수묵 담채와 수묵화의 기법을, 3학년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인 ‘수묵과 채색의 조화’에서는 산수화에 쓰이는 준법과 민화와 채색화에 관하여 도판을 실고 설명하고 있다.

3. 한국화 분석을 통한 한국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지금까지 현행 중학교 7종 미술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화의 도판과 단원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 2, 3 학년 미술 교과서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 내에 있는 각 영역의 전통 미술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학년마다 서로 연계성을 지니되 각 학년의 이해 수준과 표현 능력, 관심 있는 주제 등을 고려하여 발달 단계에 적합하면서 학년 별 체계를 뚜렷이 하는 차별성이 필요하다. 1학년은 수묵화, 2학년은 수묵 담채화, 3학년은 채색화 위주로 다루되, 1학년에서는 수묵화에 관한 표현 기법과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수묵에 의한 현대적 표현까지 다루고, 2학년에서는 수묵 담채에 관한 것과 수묵 담채의 현대적 표현까지 다루고, 3학년에서는 채색화에 관한 것과 채색화의 현대적 표현까지 다룬다면, 현행과 같이 중학교 수업시간이 30% 축소된 상황에서 중복을 피해 한국화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는 현대의 한국화에 관한 소개와 부족하다.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작가의 작품 수를 늘려서 보다 다양한 작품을 학생들로 하여금 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작품이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수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정물과 풍경 위주인 경우가 많다. 이는 학생들에게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에 대하여 인식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지 않아, 한국화에 대한 친근감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 되어진다. 이에 중학교 한국화 수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교과서에 제시하여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표현 기법에 대한 소개가 미흡하다. 이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미흡하지만 도판과 설명을 실고 있는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과서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교과서가 있다. 또한 작품의 제작 과정 수록도 삼목법, 채색화 기법 등 전통적인 표현 과정으로만 수록하고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화를 어렵고,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작품 제작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소개 한다면, 한국화에 대하여 동기유발과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것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변용하여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한국화의 기초 위에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재료와 표현 기법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VI. 중학교 한국화 교육의 바람직한 지도방안

1.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기법 지도방안

미술교육은 창작과 감각의 다양한 조형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미술과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조성을 계발하여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창조성의 능력 육성을 위해서 창조적 능력의 일부인 표현기능도 학습 목표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다. 표현에는 여러 가지 기법과 기술이 다르나, 표현기술은 창의력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경험에 의한 내면의 창조성은 전수될 수 없으나 기능이나 지식은 교사에 의해 직접 전수 되어 학습할 수가 있다.

한국화의 표현 과정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와 자기주관의 사의(思意)에 의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통적인 묘법²⁰⁾, 준법²¹⁾, 용필법²²⁾, 용묵법²³⁾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다르므로 현대 미술교육에서 재해석하여 재구성해야만 한다. 한국화의 붓 대신에 붓펜이나, 젓가락, 막대기, 스폰지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먹의 효과를 표현에 볼 수 있으며, 고무판, 그을음, 매직, 초코릿 등의 재료를 사

20) 전통적인 기본 묘법에는 백묘법, 구름법, 물골법, 감필법, 공필법이 있으며, 인물화의 모법에는 유선묘, 철선묘, 절로묘가 있다.

21) 준법은 산이나 바위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산수화에 주로 사용되며 피마준, 부벽준, 절대준, 하엽준, 우점준, 미점준, 우두준, 해색준, 마아준, 우모준, 검재준이 있다.

22) 붓의 사용법으로 붓끝의 위치에 따라 중봉, 편봉, 와봉이 있고 붓끝의 모양에 따라 원필, 방필, 파필, 편필, 독필이 있다.

23) 용묵법 먹의 사용법으로 삼묵법, 퇴묵법, 선염법, 발묵법, 적묵법, 과묵법, 갈필법이 있다.

용하여 먹을 대신하여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 선택과 표현재료의 확대 및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다양한 주제 선택

교과서에 소개되는 그림의 주제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술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재료와 함께 다양한 주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모두 주제가 될 수 있다. 관찰 표현과 구상 표현으로 크게 나누어 주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관찰 표현

- ① **정물**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학용품, 생활 용품, 주방 용품, 계절에 따른 옷과 신발, 모자, 가방 등
- ② **풍경** - 교실 안의 풍경, 내방의 풍경, 우리 동네의 풍경, 학교 가는 길의 풍경, 운동장 풍경, 화장실 풍경, 도시 풍경 등
- ③ **인물** - 친한 친구의 모습, 가족, 우리 반 친구들의 모습²⁴⁾, 체육 시간에 달리기, 농구, 배구, 줄다리기 등의 움직이는 모습, 자는 모습,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모습, 손²⁵⁾의 여러 가지 모양, 발의 모양, 얼굴의 부분 등

24) 도1>의 그림은 교복 입은 친구들의 모습을 수목담채로 표현 하였다.

25) 도2>의 그림은 목·찌·빠를 하고 있는 손의 모습을 수묵으로 표현 하였다.

- ④ 동물 - 좋아하는 동물 그리기, 우리 집 강아지 그리기, 바다 속의 물고기, 여러 종류의 곤충²⁶⁾ 등

(2) 구상 표현

- ① 상상 -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 그리기, 투명 인간이 된다면?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어 그리기, 좋아하는 이상형(미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그리기, 음악이나 이야기 듣고 난 후의 느낌을 표현하기
- ② 기억 -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나, 감동적인 영화 속 한 장면 그리기, 가장 기뻐던 일 그리기, 좋아하는 TV프로그램 그리기 등
- ③ 꿈 - 가장 무서웠던 꿈, 기억에 남는 꿈 그리기
- ④ 역사, 종교 - 역사적인 내용이나 종교적인 내용²⁷⁾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2) 표현 재료의 확대 및 다양한 표현 방법

현대의 한국화는 한국적인 감성을 가진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적인 재료를 가지고 한국적인 표현을 했을 때 한국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화에서 이용한 ‘화선지’ 라는 재료는 중국의 채륜이 처음 발명했고, ‘몰골법’²⁸⁾ 이라는 표현 방법도 중국의 왕유가 처음 시작한 방법

26) 도3>의 그림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보고 수묵채색으로 표현 하였다.

27) 도4>의 그림은 종교적인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 하였다.

28) 몰골법(沒骨法)은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붓에 함유된 농담 혹은 채색의 강약으로 사물의 형태를 그리는 기법이다. 윤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뼈가 없다는 뜻이다. 이 기법은 감정이나 운치가 듬뿍 담긴 표현에 적합하므로 정신을 맑게 가다

이지만, 이 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한국화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감성을 가지고 이런 재료들을 우리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화 교육도 전통적인 재료와 방법의 장점 위에 새로운 재료와 방법을 과감히 수용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한국화 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닌 새로운 한국화 교육을 위한 표현 도구와 표현 방법을 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 도구

① **표현 도구** - 붓(납작 붓, 둥근 붓, 서예 붓 등), 붓펜, 손가락, 발가락, 성냥개비, 젓가락, 막대기, 솜뭉치, 로울러, 분무기, 칫솔, 빨대, 스폰지, 그 밖의 물감을 묻혀서 관화의 기법을 이용하여 찍을 수 있는 각종 물건(나무, 단추, 컵, 동전, 고무판, 지우개, 모양 자, 편, 머리 빗, 나뭇잎, 돌, 작은 그릇 등)

② **표현 재료** - 양초, 파스텔, 색연필, 콘테, 목탄, 싸인펜, 매직, 마카, 동양화 물감, 포스터 칼라, 과슈,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 유화 물감, 석채, 수성·유성 페인트, 라카, 식용 색소, 공업용 안료, 커피, 카라멜, 초콜릿, 떡, 아교, 소금, 매니큐어, 립스틱, 아이 라이너, 그을음, 고춧물, 식물의 잎이나 꽃잎, 흙, 돌, 과일, 우유, 호분, 색 한지, 색노끈, 여러 색과 여러 재질의 천, 실, 철사, 피복전선, 젓소, 색모래, 머리카락, 비닐, 셀로판지, 여러 종류의 곡식 등

듬고 잡다한 것은 생략하면서 농담의 해조(諧調)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단숨에 그려 내어야 생기발랄한 생명감을 표현할 수 있다.

29) 김세열, 「중등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한국화 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1998.

- ③ **보조 재료** - 용지에 붙여 요철을 주어 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료(툽밥, 흙, 종이죽, 여러 재질의 천, 부직포, 사포, 색한지, 나무판, 칠가루, 젓소 등), 담배필터, 빨대, 지점토, 석고, 화장지, 고무판, 콩, 성냥개비, 식물의 씨앗, 솔방울, 달걀껍질, 마른 옥수수 껍질, 밀짚, 갈대줄기, 나뭇잎, 나뭇가지, 풀, 본드, 부채, 비닐, 여러 재질의 종이(화선지, 한지, 소포지, 도화지, 마닐라지, 장판지, 셀로판지, 검정도화지, 하드보드지 등), 우드락, OHP필름, 아크릴판, 쿠킹호일, 나무판, 고무판 등

(2)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

① 수묵을 이용하여 추상적(抽象的)으로 표현하기

먹물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법으로는 먹물 번지기, 먹물 흘리기, 접어 그려 펼치기(decalcomanie), 먹물 뿌리기와 떨어뜨리기, 종이 구겨서 먹물 찍기, 먹물 배여 내기, 실(絲)로 그리기, 실물에 묻혀 찍기(printing) 등이 있다.

② 종이를 가공하여 표현하기

우리 전통미술의 소재인 한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조형 실험은 기성 작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한지가 자연친화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종이로 '한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이는 다루기 쉽고 친근감 있는 재료로 중등학교 미술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종이를 가공한 새로운 표현 기법에는 종이뜨기, 종이 부조 뜨기, 종이 노끈을 이용한 표현, 태우기, 색 한지를 이용한 표현, 젖은 한지 찢기 등이 있

다. 도5>, 도6>의 작품은 색 한지를 꼬아 붙여서 추상적으로 표현 하였다. 색 한지를 꼬아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채색을 하거나 다른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더욱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

③ 다양한 선의 효과를 내어 그리기

다양한 선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손가락으로 그리기(指頭畫), 나무 붓(木筆)로 그리기, 대나무 붓(竹筆)으로 그리기, 배수성(排水性)을 이용하는 기법 등이 있다. 또한 붓펜을 사용하여 그릴 수도 있다. 도4>의 그림은 도화지 위에 붓펜을 이용하여 ‘분꽃’을 선묘하였다. 붓펜을 이용하여 그릴 경우, 먹 을 갈아서 붓에 묻혀 사용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선의 굵기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여러 색의 도화지나, 다른 재 질의 종이(한지, 소포지, 구김지, 신문지, 포장지 등)에도 붓펜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 도4>의 그림은 도화지 위에 먹 선으로 그리고, 색연필로 채색하여 성경의 내용을 표현한 그림인데, 이와 같이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선묘 위에 채색하여 표현 할 수 있다.

④ 장지나 두꺼운 한지 위에 목탄과 먹을 이용하여 그리기

도8>의 그림은 장지위에 목탄과 먹으로 그리고 동양화 물감으로 채색하여 ‘가족’을 표현 하였다. 이 표현 방법은 종이가 두꺼워서 잘 번지지 않고,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한 목탄을 사용하여 스케치하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한국화 표현을 할 수 있다. 채색은 그림에 따라 안 해도 되지만, 채색을 하는 경우, 수채화 물감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⑤ 천에 먹으로 그리고 채색하여 표현하기

도9>의 그림은 천에 먹 선으로 그린 후 분채로 채색하였다. 이와 같이 청

바지, 광목, 면 등의 여러 재질의 천에 먹으로 그리고 채색 할 수 있다. 채색을 할 경우에는 아크릴물감, 포스터물감, 색연필, 염색 물감 등 여러 종류의 물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손수건이나 티셔츠, 양말, 면으로 된 가방에도 다양 하게 표현 할 수 있다.

⑥ 호분지 위에 물감을 떨어뜨려 번지는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도10>의 그림은 호분지 위에 아교와 호분으로 여러 번 바른 후, 물감을 여러번 떨어 뜨려 번지는 기법을 이용하여 ‘선인장’을 표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응용하여, 화선지나 한지 위에 물감이나 먹물을 떨어뜨려 번지는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⑦ 매니큐어를 이용하여 채색하기

도11>의 그림은 ‘매화’를 표현 한 것으로 쿠킹호일 위에 매직, 크레파스, 아이 라이너로 줄기를 그리고, 매니큐어로 꽃을 채색하였다. 아이 라이너는 부드러워서 자유스러운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도12>은 검정도화지 위에 화이트로 구두 윤곽선을 그린 후, 매니큐어로 채색하여 유리 구두를 표현 하였다. 한국화의 흰 화선지 위에 검정 먹선으로 그리는 개념과는 반대로 검정 도화지에 흰색으로 그려볼 수 있으며, 흰색 매니큐어로 명암 표현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주로 물감으로 채색하는 것에서 벗어나, 매니큐어를 사용함으로써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며 즐거운 표현을 할 수 있다.

⑧ 여러 가지 오브제를 사용하여 표현하기

전통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에 탈피하여 현대회화의 오브제를 이용한 다양한 회화의 표현 양식을 응용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현대적 감각의 창의적인 표현

이 되도록 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미술 표현의 경향을 이해하고 종래의 기능 중심의 재현적인 표현과는 다른 조형적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특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물상들이나 각종 생활 폐기물 등을 미술 표현의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도13>의 그림은 여러 재질의 천을 잘라서 바느질로 ‘우물가의 여인’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색과 여러 재질의 천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천에 바느질로써 색과 굵기의 변화를 주어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

도14>의 그림은 종이죽과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종이죽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며, 나뭇가지 외에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등의 여러 재료로 표현 할 수도 있으며, 여러 색으로 채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도15>는 장지 위에 노란색 물감으로 채색하고, 고무판을 오려 붙여서 ‘민들레’를 표현하였다. 고무판은 말랑하여 가위나 칼로 잘 잘라지므로 쉽게 응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캔버스나 하드보지 등의 다른 재질 위에도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연물과 전통 재료를 활용한 민속적인 이미지의 표현 방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무 가지나 돌 등의 표면에 한지, 또는 화선지를 감거나 접착하여 그 위에 먹물로 그린다.

-통나무 토막이나 널빤지 위에 부분적으로 종이를 찢어 붙이고 다시 먹이나 색으로 첨가하는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추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바가지나 나무 주걱, 부채, 문살 등 민속적인 자연물이나 공예품을 바탕 재료로 하여 그리거나 종이를 첨가한다.

-종이 위에 마른 꽃잎이나 나뭇잎 따위에 먹물을 묻혀 찍어 관화적인 효과를 내거나 직접 붙이기도 한다.

-바탕화면에 먹이나 색으로 수묵화나 채색으로 민화풍의 그림을 그린 다음 그 위에 각종 자연물이나 폐품 재료 등을 첨가한다. 이 때 바탕 화면은 자신이 직접 그릴 수도 있으며, 고서(古書)나 신문, 잡지 등에서 추출한 전통회화의 사진 이미지 등을 풀라쥬 하는 방법도 있다.

⑨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도16>의 작품은 냄비와 낫순가락, 미니 자동차를 가지고 표현하였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냄비 뚜껑에 낫순가락을 붙이고, 뚜껑과 냄비를 세워 배치하였다. 이 작품처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건을 이용하여 기발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접시나 컵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아크릴 물감이나 유성매직으로 그리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한국화는 전등, 갓, 모자, 카드, 창호지 문, 연필꽂이, 책표지, 달력, 찻잔 받침, 종이컵 그림, 부채 그림, 상품 종이상자 그림, 우유팩 그림, 필통 그림 등이 있다.

또한 도4>의 그림은 교회의 주보 표지로,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국화 그림이다.

이 밖에도 칠하기, 번지기, 겹치기, 덧바르기, 덧바른 후 긁어내기(밀색 보이기, 스크래치), 프로타쥬나 탁본 후 채색하기, 마블링, 스테인드글라스, 30) 모자이크, 풀라쥬, 잡지나 색종이, 색 화선지를 붙인 후 표현하기, 스텐실,

30) 도17>의 그림은 아크릴판 위에 스테인드글라스 물감으로 '여인'을 표현 하였다. 아크릴판을 이용하여 아크릴 물감이나, 유성매직으로도 그리거나 채색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아크릴판을 들고 눈에 보이는 풍경을 따라서 그리는 방법으로 흥미로운 표현을 할 수 있다.

젓은 종이에 색을 떨어뜨려 표현하기, 대팻밥이나 툇밥 또는 탈지면을 붙여서 표현하기, 화선지나 지점토를 뭉쳐 붙인 후 입체감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딱딱하게 굳은 물감을 곱게 갈아 뿌리고 물을 뿜어서 붓 자국 없이 곱게 화선지에 채색하기 등의 표현 기법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표현 기법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림에 담긴 근본적인 미의식을 이해하고 특징³¹⁾을 살려서 조형요소와 형태의 조화, 공간과 여백의미를 익혀 창의력과 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대 회화의 새로운 예술정신을 이해하여 한국화의 제반양식과 기법을 활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

2. 학습지도안

1) 민화를 이용한 새로운 표현

(1) 제재 : 현대적인 민화 그리기

< 민화의 소재 중에서 문자도를 감상한 후, 이를 응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문자도 그리기 >

(2) 학습목표

- ①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우수성과 특성을 알 수 있다.
- ② 민화의 표현기법을 응용하여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3) 준비물

붓펜, 배접된 두꺼운 한지, 물감도구, 연필, 지우개

31) 우리나라의 전통회화를 비롯한 동양의 미술은 선과 여백을 중시하고 운필과 먹의 농담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이용하여 내면의 정신적인 멋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4) 교수-학습활동

| 대영역 | 2. 표현 | 중영역 | 22. 표현 방법 | 수업제재 | 현대적인 민화 그리기 |
|---------------|--|---|--|--|-------------|
| 단원명 | 수묵담채로 표현하기 | | | 차시 | 1,2 / 2 |
| 학습 목표 | 21-1. 나타내고자하는 주제의 특징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2-2. 주제와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2-1. 학습 준비와 제작을 성실히 하고 작품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다. | | | | |
| 필수학습 요소 | 2-22-2 주제와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표현방법 탐색 2-24-2 표현 재료와 용구의 활용 | | | | |
| 단계 | 학습요소 | 교수·학습활동 | | 자료 및 유의점 | |
| | | 교 사 | 학 생 | | |
| 준비 및 발상 (10') | ▶ 전통회화-민화 그림감상 ▶ 미적요소 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점검 ◦ 본시 학습목표 제시 ◦ 교과서의 예화와 여러 주제의 민화와 문자도를 보여주고 설명한다. ◦ 준비물을 점검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한다. ◦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 교과서의 예화와 여러 주제의 민화와 문자도를 감상한다. ◦ 준비물을 갖춰서 나열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화 그림자료 ◦ 실물 화상기 | |
| 구상 및 표현 (70') | ▶ 수묵담 기법과 작품 제작 순서 ▶ 작품구상 ▶ 실기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붓펜을 이용한 수묵담채화의 기법과 작품 제작 순서를 설명한다. ◦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인다. ◦ 각자가 준비한 재료로 다양한 수묵담채 표현이 되도록 한다. <p>■ 작품 제작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상하기 ② 한지위에 연필로 흐리게 밑그림 그리기 ③ 붓펜으로 윤곽선 그리기 ④ 물감으로 채색하기 <p>· 가능한 세밀하게 스케치하도록 지도한다. · 필요에 따라 대상의 생략, 변형, 추가, 강조 가능 · 개성이 있는 표현지도 · 형태를 단순화 시키거나 인상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화면에 독창적인 분위기를 이룬다. ◦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개별지도 한다. · 선의 강약에 의한 원근의 표현 · 개별지도 시 선, 명암의 표현기법을 시범해 보인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붓펜을 이용한 수묵담채화의 기법과 작품 제작 순서를 인지한다. ◦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구상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에 치중하여 창의성이 약하게 배려한다. ◦ 개성적 표현-교사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한다. | |

| | | | | |
|----------------------------------|--------------------|--|---|--|
| <p>감상 및 평가 (10')</p> | <p>▶ 작품 감상</p> | <p>◦문자도를 현대적 감각에 맞춰 창의적이고 개성적 으로 표현한 작품, 색채 조화가 잘된 작품, 담채 표현이 잘된 작품을 선 정한다. ◦칠판에 게시하여 학급원 들이 모두 감상하고, 서 로의 느낌을 말할 수 있 게 한다. ◦ 중간 평가 ◦ 학습 정리 ◦ 자기의 작품과 비교해 보고 장단점이나 보완점 을 찾아서 본다. ◦ 차시 예고 ◦ 주변 정리</p> | <p>◦문자도를 현대적 감각에 맞춰 창의적이고 개성적 으로 표현한 작품, 색채 조화가 잘된 작품, 담채 표현이 잘된 작품을 게시 한다. ◦칠판에 게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 한다. ◦차시예고를 듣고 준비한 다.</p> | <p>◦평가표를 이 용하여 중간평 가 결과를 학 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p> |
|----------------------------------|--------------------|--|---|--|

2) 문인화를 이용한 새로운 표현

(1) 제재 : 현대적인 문인화 그리기

< 사군자와 문인화를 감상한 후, 이를 응용하여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사군자 그리기 >

(2) 학습목표

- ①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우수성과 특성을 알 수 있다.
- ② 사군자와 문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표현기법을 이용
하여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3) 준비물

얇은 고무판, 칼, 배접된 하드보드지, 본드, 붓펜, 물감도구, 연필, 지우개

(4) 교수-학습활동

| 대영역 | 2. 표현 | 중영역 | 22. 표현 방법 | 수업제재 | 현대적인 문인화 그리기 |
|------------------------|--|---|---|---|--------------|
| 단원명 | 수묵담채로 표현하기 | | | 차시 | 1,2 / 2 |
| 학습 목표 | 21-1. 나타내고자하는 주제의 특징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2-2. 주제와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2-1. 학습 준비와 제작을 성실히 하고 작품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다. | | | | |
| 필수학습 요 소 | 2-22-2 주제와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표현방법 탐색 2-24-2 표현 재료와 용구의 활용 | | | | |
| 단계 | 학습요소 | 교수·학습활동 | | | 자료 및 유의점 |
| | | 교 사 | 학 생 | | |
| 준비 및 발상 (10') | ▶ 전통회화 -문인화 그림감상 ▶ 미적요소 찾기 | °출석점검 °본시 학습목표 제시 °교과서의 예화와 여러 주제의 문인화와 현대작가의 고무판을 이용하여 표현한 문인화의 작품을 보여주고 설명한다. °준비물을 점검한다. | °응답한다.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교과서의 예화와 여러 주제의 문인화와 현대작가의 고무판을 이용하여 표현한 문인화의 작품을 감상한다. °준비물을 갖춰서 나열한다. | °문인화 그림자료 °실물 화상기 | |
| 구상 및 표현 (70') | ▶ 고무판을 활용한 수묵담채화 기법과 작품 제작 순서 | °고무판을 활용한 수묵담채화의 기법과 작품 제작 순서를 설명한다. °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인다. ° 각자가 준비한 재료로 다양한 표현이 되도록 한다. ■ 작품 제작 순서 ① 구상하기 ② 고무판 위에 연필로 밀그림 그리기 ③ 밀그림 윤곽선을 따라 고무판을 자르기 ④ 배접된 하드보드지 위에 붙이기 ⑤ 구도를 생각하며 물감으로 채색하거나 붓펜으로 그리기 ⑥ 붓펜으로 그림에 어울리는 시나 글을 쓰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 완성하기 | °고무판을 이용한 수묵담채화의 기법과 작품 제작 순서를 인지한다. | ° 이 론 에 치 중 하 여 창 의 성 이 위 축 되 지 않 게 배 려 한다. ° 개 성 적 표 현 - 교 사 의 의 견 을 강 조 하 지 않 고 자 유 스 럽 게 자 기 의 느 낌 을 표 현 하 도 록 한다. | |

| | | | | |
|----------------------------------|-------------------------------|---|---|--|
| <p>구상 및 표현 (70')</p> | <p>▶ 작품구상 ▶ 실기지도</p> | <p>·필요에 따라 대상의 생략, 변형, 추가, 강조 가능 ·개성이 있는 표현지도 ·형태를 단순화 시키거나 인상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화면에 독창적인 분위기를 이룬다.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개별지도 한다. ·개별지도시 표현기법을 시범해 보인다.</p> | <p>◦ 다양한 표현을 구상한다.</p> | |
| <p>감상 및 평가 (10')</p> | <p>▶ 작품 감상</p> | <p>◦문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춰 창의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한 작품, 자신의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품,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잘된 작품을 선정한다. ◦칠판에 게시하여 학급원들이 모두 감상하고, 서로의 느낌을 말할 수 있게 한다. ◦ 중간 평가 ◦ 학습 정리 ◦ 자기의 작품과 비교해 보고 장단점이나 보완점을 찾아서 본다. ◦ 차시예고 ◦ 주변 정리</p> | <p>◦문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춰 창의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한 작품, 자신의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품,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잘된 작품을 게시한다. ◦칠판에 게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차시예고를 듣고 준비한다.</p> | <p>◦평가표를 이용하여 중간 평가 결과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p> |

V. 결 론

한국화 교육은 바로 전통 미술의 이해와 그것을 통해 동양의 사상을 접하고 그 안에서 우리 고유한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여 타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문화를 주체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우리 미술 교육 현장은 한국 미술을 이해하는 것 보다 서양 미술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만큼 서양 미술에 편중되어 있다. 학생들은 우리의 옛 그림을 낯설거나 어려운 것으로 여겨 친근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막연히 한국화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관심이 적은 이유가 한국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서양문화로 미술 문화 역시 서양의 것을 먼저 접하였기 때문에 한국화가 낯선 것이 되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화가 친근감을 상실한 이유를 중학교 7종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여 조사하고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방안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인 기법의 강요 보다는 한국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 시키는 다양한 표현이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다양한 소재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지도할 때, 보다 흥미롭고 창의적인 한국화 수업이 될 것이다.

둘째, 교과서에 삽입된 참고작품은 학생들의 작품이나 현대작가들의 한국화 작품의 수록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해야 한다. 그럴 때에 학생들은 현대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한 작품들과 또래의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더 많이 접함으로써 더욱더 한국화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 전통회화를 응용하여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미술 수업을 할 때 먹이나 화선지 등의 한국화 재료는

학생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재료이다. 그만큼 많이 다루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학생들에게 주제에 대한 표현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한국화의 재료가 외면되지 않도록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다양한 한국화 표현 방법을 모색하고, 전통회화의 정신성을 기조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표현기법이 개발 되어 현장에 보급될 때에 한국화 수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화 교육을 통한 ‘우리 민족의 미적 정서의 함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화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에 대해 좀 더 관심과 애착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한국적인 미적 정서를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세계 속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가지는 한국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화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 미술을 계승하며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는 한국화 교육 지도방안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김영주, 『한국미술사』, 나남출판, 1997.
박용숙, 『한국화 감상』, 대원사, 1992.
박은영 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 인적자원부, 1999.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은 문화사, 2000.
송수남, 『한국화의 길』, 미진사, 1995.
안휘준, 『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윤범모, 『한국근대미술』, 한길아트, 2000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8.
장경희 외.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예경. 1994.
진조복, 『동양화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5.
진준현, 『우리 땅 진경산수』, 보림출판사, 20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 24』, 웅진출판주식회사, 1994.

교과서

- 고승혜 외 4인, 「중학교 미술1」, (주) 두산, 2001.
-----, 「중학교 미술2」, (주) 두산, 2002.
-----, 「중학교 미술3」, (주) 두산, 2003.
김기숙 외 7인, 「중학교 미술1」, 대한교과서(주), 2001.
-----, 「중학교 미술2」, 대한교과서(주), 2002.
-----, 「중학교 미술3」, 대한교과서(주), 2003.
김정희 외 6인, 「중학교 미술1」, (주)교학연구사, 2001.

-----, 「중학교 미술2」, (주)교학연구사, 2002.
 -----, 「중학교 미술3」, (주)교학연구사, 2003.
 노부자 외 4인, 「중학교 미술1」, (주)지학사, 2001.
 -----, 「중학교 미술2」, (주)지학사, 2002.
 -----, 「중학교 미술3」, (주)지학사, 2003.
 노영자 외 1인, 「중학교 미술1」, (주)교학사, 2001.
 -----, 「중학교 미술2」, (주)교학사, 2002.
 -----, 「중학교 미술3」, (주)교학사, 2003.
 서석례 외 2인, 「중학교 미술1」,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1.
 -----, 「중학교 미술2」,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중학교 미술3」,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홍명섭 외 1인, 「중학교 미술1」, (주)삶과 꿈, 2001.
 -----, 「중학교 미술2」, (주)삶과 꿈, 2002.
 -----, 「중학교 미술3」, (주)삶과 꿈, 2003.

학위논문

김세열, 「중등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한국화 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상욱, 「미술교육에서 미적 감상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희은, 「중학교 미술교과에 나타난 수묵화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기간행물

이성도, 「한국미술의 조형의식」, 『미술교육』, 제5호,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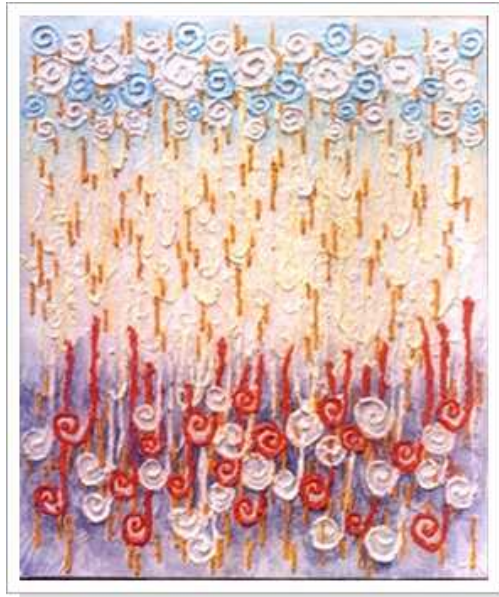
참고 도판



도1> 조현숙, 학생들 (수묵담채/120×90cm) 도2> 조현숙, 목·찌·빠 (수묵/38×36cm)



도3> 조현숙, 초충도 (수묵 채색/34×26cm) 도4> 조현숙, 주보그림 (도화지에 먹과 채색/35×37cm)



도5> 조현숙, 비구상 (색한지/97×137cm) 도6> 조현숙, 비구상 (색한지에 채색/97×137cm)



도7> 조현숙, 분꽃 (붓펜 선묘/35×25cm) 도8> 조현숙, 가족 (장지에 목탄/164×125cm)



도9> 조현숙, 어린 시절 (천에 채색/43×33cm)



도10> 조현숙, 선인장 (호분지에 채색/89×67cm)



도11> 조현숙, 매화, (호일위에 매직, 매니큐어/35×37cm)



도12> 조현숙, 유리 구두.

(검정색 도화지위에 매니큐어 화이트/29×22cm)



도13> 조현숙, 우물가 (천 플라쥬/29×30cm)



도14> 조현숙, 비구상 (종이죽, 나뭇가지/39×28cm) 도15> 조현숙, 만들레 (장지위에 고무판/23×23cm)



도16> 조현숙, 비구상 (양철냄비, 숟가락, 미니자동차, 아크릴 물감/20×50cm)



도17> 조현숙, 여인 (스테인드글라스/29×21cm)

ABSTRACT

The Effective Teaching in the Korean Painting at the Middle School

- Focusing on the Various Expression Technique -

Cho, Hyun-Suk

Dept. of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n painting can be called historic product that is advanced naturally in its naturalistic spiritual soil of our nation keeping creativity and universality being main volume for five millennia and absorbs foreign painting including the China spontaneously. Understanding and express tradition art of our nation through a Korean painting, globalization can train Korean who retain individual culture in internationalization. But, art education until now have looked tendency which neglect tradition conversation. Specially, effective education of Korean painting practical skill teaching is not achieved in education spot. This is because human sea actual tradition art education is not achieved properly because is not supplied in spot because map method about tradition art education or connection datas is developed variously. It is caused by the reason and the students whom education it is receiving now from our fine arts education sites are strange our

old pictures, or, it will think with the fact that they are difficult and it will wind intimately and it loses and it is the actual condition which is going. Hereupon, I made a this study to grope a effective Korean painting map plan that can establish easy practical skill map substance that can give as is familiar about Korean painting that students do and approach to a Korean painting and diversify map method.

Analyze Korean painting education contents of current middle school 7 kinds art text book of the seventh course of study after searches Korean painting map method by sense and secondary education developmental stage of Korean painting teaching after describes historic stream of Korean painting based on literature and data to these study contents, and examines concept of Korean painting and special quality and examined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a Korean painting education.

As a result, easy and interesting education that can present various expression material and expression method that can activate Korean painting education that do to war damage that it is the biggest problem applies our tradition conversation and lacks program about various material and expression method, and utilize in actuality class made studying guidance plan of the possible practical skill center. This paper for a effective Korean painting class in middle school art education mind of Korean painting as wish to grope various and interesting various kinds expression technique map plans by keynote students cause interest and interest for a Korean painting make, and fertilize human nature and emotion, and there is the sense to inherits and prospers our tradition art.